



보도시점 : 2026. 4. 8.(수) 11:00 이후(4. 9.(목) 조간) / 배포 : 2026. 4. 8.(수)

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 민간 중심 협의체 본격 가동

- 9일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첫 총회... 민간 의장사 선출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
- 기업·정부 함께 규제 개선·기술개발 추진...드론 활용 서비스 확대 기대

□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운덕)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 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

* 산업부·국방부 등 10개 정부 부처, 니어스랩·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88개 드론·항공 분야 기업, 17개 대학, 12개 학회/협회/비영리법인, 27개 지방정부, 24개 공공기관 등 **374개 기관**으로 구성('26.3월 기준)

□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하여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 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 작년 출범 때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제 정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하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① 상용화 촉진 ② 규제 개선 ③ 기반 조성 ④ 핵심기술 자립 ⑤ 국제 협력 등 5개 분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
 - 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
 - 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PU)'도 신설하여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하여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하이브리드 섬 배송용 드론 플랫폼, Narma), 시스테크(드론 활용 3D 데이터맵, Sistech), 비이아이(차세대 국산 배터리, BEI)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되어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여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하여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	책임자	과 장	이창기 (044-201-4307)
		담당자	사무관	한송미 (044-201-4253)
		담당자	주무관	이혜미 (044-201-4308)
담당 기관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본부	책임자	본부장	전충용 (032-727-5600)
		담당자	실장	강현우 (032-727-5749)



참 고

드론산업얼라이언스 1차 총회 행사 계획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4.9(목) 14:30~17:30 /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
- (참석) 국토부 장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산·학·연 등 300여명
- (주요일정) 정부 드론 정책 발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2026 운영 계획 및 분과별 활동 계획 발표, 총회 의결, 회원사 의견 수렴 등

□ 행사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 용	비고
사전 행사	14:30~15:30	10'	▪ 드론 기업 간담회	국토교통부 장관
본 행사	15:40~15:47	7'	▪ 참석자 소개 및 행사 안내	사회자
	15:47~15:50	3'	▪ 영상 시청	-
	15:50~15:55	5'	▪ 환영사	국토교통부 장관
	15:55~16:00	5'	▪ 기념 촬영 * 드론 활용 촬영	-
	16:00~16:30	30'	▪ 드론 산업 관계 기관 정책 발표회 · 국토부 - 산업부 - 국방부 - 방사청 - 국조실	관계 기관
	16:30~16:50	20'	▪ 드론 관련 특강	-
	16:50~17:25	35'	▪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주요 운영계획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분과위원장
	17:25~17:30	5'	▪ 폐회 선언	의장사

* 세부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